

창간 25주년 기념

품질위주의 양돈경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유래없는 3고 현상을 맞고 있다. “고돈가-고사료가-고질병”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 사안을 되짚어 보고 하반기 양돈산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사료 곡물가격의 추세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농무성이 발표한 '04/'05년도 세계 곡물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03/'04 회계연도와 다름 없이 전체적으로 사료곡물의 재고량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우지와 함께 에너지의 주공급원인 옥수수의 경우, 양돈사료 원료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세계 옥수수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무려 23.2%

<표 1> '04/'05년도 세계 곡물수급 동향(USDA, 04/5/12)

구 분	생 산 량		국내소비량		수 출 량		재 고 량		제고율
	전년비	점유비	전년비	점유비	전년비	점유비	전년비	점유비	
사료곡물	세계 3.7%		0.8%		1.4%		-14.7%		9.9%
04/05년	미산 3.0%	31%	1.0%	24%	3.1%	58%	-6.5%	22%	8.0%
옥수수	세계 4.6%		2.0%		0.6%		-23.2%		9.0%
04/05년	미산 3.1%	41%	0.6%	32%	2.4%	69%	-8.1%	28%	7.0%
대두	세계 -3.7%		3.8%		0.3%		-20.3%		12.2%
03/04년	미산 -12.3%	39%	-8.9%	21%	-13.9%	40%	-35.5%	10%	4.6%
대두박	세계 3.8%		2.9%		9.8%		-5.5%		1.9%
03/04년	미산 -8.3%	23%	-3.3%	21%	-29.3%	8%	-20.0%	5%	0.5%
소맥	세계 7.1%		1.1%		-5.0%		-4.3%		17.7%



김형린 대표
맥스피드

〈표 2〉 주요 사료곡물의 근년도 도입가격 추세(실제 사용은 구매계약월로부터 약 3개월 후임)

년/월(C&F, \$)	01/09	02/03	02/06	02/11	03/04	03/06	03/09	03/12	04/01	04/03	04/5/13
옥수수(미산)	112.0	104.0	115.0	136.0	136.3	138.0	136.0	165.9	177.7	206.8	181.7
대 두(미산)	206.0	197.0	218.0	247.0	264.3	264.3	274.0	351.3	373.7	449.9	433.0
대두박(미산)	228	210	235	230	240	250	260	330	345	398	415.5
대두박(남미)	200	190	210	220	210	215					332
대두박(인도)		190		210			220	250	315	321	370
옥수수(미산)	82	76	84	100	100	101	100	122	130	152	133
대 두(미산)	78	75	82	93	100	100	104	133	141	170	164
대두박(미산)	95	88	98	96	100	104	108	138	144	166	173
대두박(남미)	95	90	100	105	100	102					158
대두박(인도)											

[2003년 2회의 가격 인상]

[2004년 1, 3, 6월 인상]

〈표 3〉 한국에 도입되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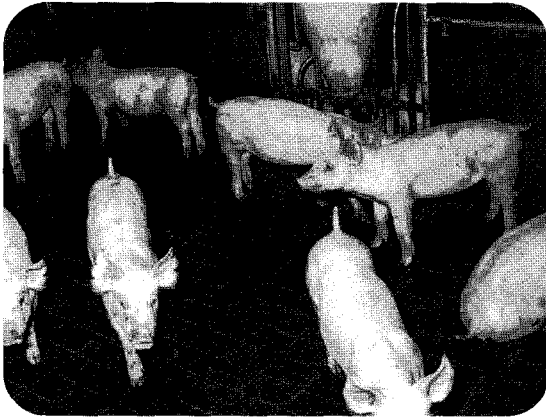
C&F(근월도) 단위 : US\$/톤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평균	5월	평균	5월	4월	5월/13	
• 양허관세 추천품목							
옥수수(미산)	120	113	141	139	209	182	하락세(해상운임)
옥수수(중국)	108	103	122	120	185	163	수출 중단세
대 두(미산)	220	211	281	276	448	433	하락, 심각한 재고부족
타피오카(태국)			79		106	106	
• 기자유화 품목							
사료용 소맥(중국)	-	-	-	-	185	-	중단
사료용 소맥(EU)	108	105	113	-	-	-	중단
소맥피(동남아)	94	96	97	-	133	-	
루핀시드(호주)	154	150	178	176	245	213	하락 및 보합세
대두박(미산)	222	217	262	257	425	416	사용 안함
대두박(중국)	-	-	-	-	-	-	
대두박(남미)	195	184	220	-	372	339	8월말부터 사용
대두박(인도)	200	190	246	-	-	-	내년 봄부터 사용
채종박(인도)	126	132	123	127	171	165	하락 및 보합세
면실박(중국)	122	118	153	158	-	-	수출 중단세
[환율] 전선환매도율	1264	1277	1185	1212	1163	1196	불안정

나 감소할 전망이며 미산옥수수가 세계 수출량의 69%를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백질의 주공급원인 대두박은 세계적인 감소와 최악의 재고율로

인하여 7~9월 사용분은 〈표 2, 3〉과 같이 작년 도입가격에 비하여 60% 정도 인상될 것이다.

특히 금년도 2/4분기(4~6월)에 사용된 인도산 대두박

의 품질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옥수수는 국적을 불문하고 품질이 저하된 양상을 보여왔다. 전세계적인 곡물재고율의 감소,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의 수출 중단과 급격한



● 7~9월은 고품질의 사료를 사용하고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예견되는 문제는 10월 이후 저돈가 진입과 고밀교차기(환절기)에 만연할 질병의 만연이다.

철광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국제 해상운임의 폭등의 여파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료가격은 3차례에 걸쳐 톤당 85,000원(25~28%) 정도의 인상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올 7~9월 도입분의 가격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므로 여전히 사료 톤당 30,000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다행히 국제 해상선임의 인하로 10월 이후 가격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곡물재고의 감소와 경제호황, 그리고 해상운송 수요 증가에 기인한 높은 선임을 고려할 때, 설령 올 가을 신곡의 작황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2년간은 고곡물가의 기조가 꺾일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2. 하반기 사료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주의할 점

금년도 1/4분기의 돼지도 축두수는 370만여두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1~4월의 양돈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4.2%가 감소하였다. 또한 양계사료 생산량도 조류독감 파동의 결과로 7.5%가 줄었으며, 우유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낙농분야의 사료생산량도 5.1%가 감소하였다. 경기침체와 광우병의 여파로

가격폭락에 시달리는 비육우용 사료만이 유독 8.6%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축종에 걸쳐 사료생산량이 감소하자 지난 4월부터 사료회사들은 판매량 증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마도 7~9월의 사료원료가격이 폭등한다 하여도 현재의 양돈농가들의 분기기를 볼 때 더 이상의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요구(저가격과 제품의 질병 대처력)에 부응한 제품 및 판매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하여 사료원료 가격의 하락기와 더위에서 벗어

<표 4> 2004년 월별 사료가격 및 지육경락가 예상

년 월	0312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411	0412	년간
사료단가	310	310	345	345	380	380	405	405	405	405	405	405	405	382.9
인상(원/kg)			35	0	35	0	25	0	20	0	0	-10	0	105
지육가(서울)	2497	2818	3235	3358	3448	3755	3850	3500	3400	3000	2600	2500	2600	3172

사료의 품질이 저하되면 출하일령은 늦어지고 자돈들은 커 올라와서 엄청난 밀사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되면 전돈군의 부실화에 따른 성장지연과 매출액의 엄청난 감소와 돈군면역력의 저하를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7월까지의 출하예정두수의 부족에 기인한 돼지값 강세는 추석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예견되는 문제는 10월 이후 저돈가 진입과 고일교차기(환절기)에 만연할 질병의 만연이다. 결론적으로 7~9월은 고품질의 사료를 사용하고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사료섭취량이 극대화되는 4/4분기에 경영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은 이 점을 경계하기를 바란다.

돈열백신의 후유증으로 돈군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집중된 PMWS와 PED의 여파로 출하할 돼지가 현저히 줄어들어 농장간의 생산성(출하두수) 차이에 따른 희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양관리의 개선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의 4~6월 이유성적과 이유후 폐사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에는 생리적인 사료섭취량의 감소로 약 2주의 출하일령이 증가된다.

하물며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여름철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감안할 때, 사료의 품질이 저하되면 출하일령은 늦어지고 자돈들

은 커 올라와서 엄청난 밀사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되면 전돈군의 부실화에 따른 성장지연과 매출액의 엄청난 감소와 돈군면역력의 저하를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7월까지의 출하예정두수의 부족에 기인한 돼지값 강세는 추석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예견되는 문제는 10월 이후 저돈가 진입과 고일교차기(환절기)에 만연할 질병의 만연이다. 아마도 그 비싼 갓난돼지사료를 잘 먹여 이유해서 40일령이 지나면서 갑자기 위축·폐사되는 PMWS를 겪은 경험이 있는 농장은 돼지 키우기가 무척 겁이 날 것이다.

3. 맺으면서... 공짜는 없다!

결론적으로 7~9월은 그 어

느 때보다도 가격을 더 쳐주어도 고품질의 사료를 사용하고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원료가는 폭등하는데 짝 값에 전체농장에, 그것도 3개월간 사료를 공급할 수 있을까? 품질은 기존제품보다 떨어뜨리고 특수물질을 첨가한 신제품이라며 마케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PMWS의 위력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거래는 무척 조심스러워진 경향이며, 다행히도 고돈가인 관계로 떨어모돈의 상당수는 도축되고 있어 당분간 실제 모돈수의 증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출하두수 부족에 기인한 고돈가가 점쳐진다. "사료품질 저하, 출하지연, 밀사, 질병 다발"이 거듭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 **양돈**